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소 현

정 문 경[†]

윤심리상담센터 / 센터장

한세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으로는 의도적 표집을 활용하여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경험한 상담경력 5년 이상의 상담자 8명을 모집하였다. 연구분석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 Giorgi(1985)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참여자의 진술로부터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구성하는 7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구성 요소가 도출되었다. 7개 핵심 구성요소는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마주함, 사례의 큰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움, 내담자의 감정이 전이되어 고통을 공유함, 내담자의 세계에 몰입됨, 삶의 균형감을 잃어버림, 상담의 동맹자로서 회복에 다가섬, 한 고비 넘어 다시 상담의 여정으로 나아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담자로서 심리적 부담을 느낌, 상담과정 중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진통, 상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내담자와의 동반성장이 소진의 회복기제가 됨이라는 4개의 통합적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논의와 의의,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상담자,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김소현(2022)의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및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정문경, 한세대학교 교수,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Tel: 031-450-5188, E-mail: jmoonk509@hansei.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성가족부(2017)의 조사에 의하면 친족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07년 8,427건에서 2017년 16,526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2020)의 조사에서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대상으로 유아의 경우 86.9%, 어린이의 경우 68.6%, 청소년의 경우 23.2%로 나타났다(김소현, 2022). 이와 같이 친족성폭력은 인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들이 주된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저항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은밀하게 지속된다(신현주, 2019). 친족성폭력 생존자 김영서(2020) 작가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목사였던 친부의 성폭력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그리고 탈출과 잡혀 오기가 반복되었으나 무려 9년이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피해는 평범한 가정의 틀 안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 오랫동안 은폐되었고 그 현실에서 벗어난 후에도 해리성 장애로 인하여 온전한 기억을 잃은 채 파편적인 기억만 존재하였다(김영서, 2020).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에 대한 강제성의 유무로 결정된다(공수자, 이정숙, 2004). 그러한 성폭력 중 친족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친족 관계의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한 경우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친족은 대한민국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친부가 아니라도 동거하고 있는 모의 남자친구 등에 의한 성폭력도 이에 해당된다. 즉 혈연관계, 반혈연관계, 계부모 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 입양에 의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이다. 성폭력 범죄의 발생 시 성폭력 사

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12년 개정에서 피해를 당한 본인이나 보호자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며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고소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미정 외, 2013). 그러나 친족성폭력은 가족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있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대상이기에 가해자의 신변을 걱정하는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피하거나 부인하며(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공론화시키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인 관계나 스트레스 관리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영택 외, 2010). 그리고 이로 인한 우울감, 스트레스, 자살 시도 등 다양한 증상과 문제로 상담에 의뢰된 후에야 친족성폭력 피해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영혜 외, 2017). 조성호와 김연희(2011)는 친족성폭력은 신뢰 기반의 가족이 오랜 시간 가해자였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마저 어려워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친족성폭력 피해를 해결해 나가는 피해자와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반응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아버지가 자녀를 성폭행하였던 경우 아내는 가해자인 남편으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 분노, 우울감을 경험하며 남편과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때로는 남편과 법적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느껴 자녀의 호소를 부인하기도 한다(한인영 외, 2012;

Elliot & Carners, 2001; Kilroy et al., 2014). 또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아동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여도 성폭력 발생의 사실은 부모에게 심한 정서적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Hackett & Masson, 2006). 부모는 피해자에게 돌봄과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부모 역시 사건 발생의 충격과 당황스러움, 혼란감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한다(이경은, 김미정, 2011).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 개입 기관으로는 전국의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 공동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학대 관련기관, 가정폭력 쉼터, 선도 보호시설 등이 있다(변혜정 외, 2005). 각 기관에서 상담자들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인지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해자이기 이전에 가족이라는 사실로 인해 신고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상담자 또한 피해자와 함께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며 신고의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제적 지원 관계에 놓인 가족 구성원 간일 때 피해자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더욱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김영혜 외, 2017). 상담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신고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가해자가 범죄를 부인하거나 그 이외의 가족이 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여 고소가 취하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 이후 가해자의 판결과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담자에게 언어폭력과 협박을 하여 위협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종종 있

다(김영혜 외, 2017).

이러한 과정에서도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는 상담자들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정서를 섬세하게 다루어 간다. 이때 상담자들은 만족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전이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고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변혜정, 조중신, 2005). 내담자의 사건이 떠오르고 그것이 상담자의 생활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며 강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거나(Figley, 2002; Craig & Sprang, 2010) 내담자의 이야기나 감정을 통해 자신의 학대를 상기시키기도 한다(Pearlman & Saakvitne, 1995). 내담자 자살사망 경험의 상담자를 연구한 손유미(2023)의 연구에서 참여자가 면담 질문지의 사전 확인 단계에서부터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자기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를 철회한 경우를 보더라도 위기 개입 상담자는 직업 장면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을 상실시키고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는 등 인지적인 영역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한다(Streed & Downing, 1998).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감정에 전염되는 경향을 가지는데(Jung, 1968) 내담자의 부정적인 정서에 전염된 상담자는 공감피로를 경험하며(양윤정, 2015) 이는 다시 소진으로 연결되고(신민섭, 이서정, 2011; 최윤미 외, 2002) 그들은 소진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일에서 떨어져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신민정, 2007).

상담자를 위한 소진이나 대리외상 극복 방안으로 슈퍼바이저에 의한 지속적인 슈퍼비전이나 상담자를 위한 개인상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강방글 외, 2013; Pearlman

& MacIan, 1995; Slattery, 2003) 하지만 정보나 예산, 시간의 한계로 그러한 것들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슈퍼바이저의 자질이나 상담 기관의 이념 차이 문제로 제대로 된 슈퍼비전을 받기 어려운(Sommer & Cox, 2005; Trippany et al., 2004) 것이 현실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국내 학회나 국가 기관을 통해 상담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한 주제에 따른 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안내도 없다(김소현, 2022). 따라서 상담자들이 실제로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며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 탐색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무엇이 보완되면 좋을지 연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은 일회성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담의 순차적 경험과 상담 과정에서의 대처와 정서, 일상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적응과 회복 등 살아있고 깊이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그것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직접 파악하는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들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은 어떤 경험인지 밝히고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했던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이 겪은 심리적 경험을 생생한 언어 자료로 진술하도록 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상담자들의 물리적, 심리적 경험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과 성장을 인식하고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들의 건강한 삶과 전문성 보장은 피해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에 다양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최근 친족성폭력 범죄 및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의 독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상담자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방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손유미(2023)는 자살사망 내담자의 상담을 경험한 상담자들을 자살생존자로 보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보편적인 반응으로 이해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애도과정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상담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상담의 걱정이나 부담 없이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경험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을 탐색해 보는 것으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확보한 뒤 그들을 통해 다시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적절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상담 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친족성폭력 사례를 최소 1사례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상담자가 경험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공통점이나 특성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상담자가 경험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공통점과 개별적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사례 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둘째, 상담경력은 5년 이상으로 상담자의 초심경험을 다루는 것이 아닌 친족성폭력 사례와 타 사례와의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는 누적된 경험을 가진 상담사로 하였다. 셋째, 성폭력 전문기관과 일반상담 기관의 상담자를 골고루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기관에 따라 또는 동일 기관 내에서도 각기 다른 상담자의 경력과 성폭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듣고자 하였다. 넷째, 본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하였으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던 상담자로 하였다. 이는 연구의 주

제가 매우 민감하여 참여자가 내담자에 대한 기억을 소환한 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불이익이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수집에 대한 ‘충분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가능한 한 인터뷰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탐색 되지 않고 동일한 개념의 진술이 반복되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인터뷰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상담 관련 학회나 국가 자격증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었으며 슈퍼비전과 개인 분석의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총 8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의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며 이러한 상담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였다.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참여자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상담경력	기관	자격증
1	여	40대	석사	상담	10년 이상	①	③⑤
2	여	30대	석사	상담	8년	①	⑤
3	여	40대	석사	상담심리	10년 이상	②	③
4	여	40대	석사	상담심리	10년 이상	②	③
5	여	50대	석사	상담	9년	②	③
6	여	40대	석사	상담	10년 이상	①	④⑤
7	여	50대	석사	상담심리	6년	①	⑤
8	여	50대	석사	상담심리	5년	①	⑤

주.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성관련기관 ③ 상담사2급 ④ 상담사1급 ⑤ 청소년상담사2급

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친족성 폭력 피해자 상담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보완 후 지도교수와 현상학 연구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 1인, 그리고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동료 2인에게 추가로 보완 받아 반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에는 일반적 인적 사항과 상담환경,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의 생각, 감정, 행동, 상담 후 상담자의 변화적 경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회~2회의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대면이나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접에 든 시간은 8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추가 질문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메신저나 전화, 이메일을 활용하여 전달받았으며 녹음자료에 대한 필사 후에도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내용을 전달하여 재확인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4 단계 절차를 따랐다. 첫 번째, ‘전체인식(sense of the whole)’단계에서는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자료를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스스로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여자가 표현했던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의 편견과 사전지식을 배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필사본을 참여자의 기술 전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순간의 감정과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고 그것과 떨어져서 반성해 보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면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meaning unit)’를 구분하는 단계로 연구자는 필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며 참여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게 요약하고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각각의 의미 단위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세 번째, 대상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구분해 놓은 의미단위를 서로 대조하면서 관련성을 찾고 반성과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Giorgi(2004)가 제안한 대로 가급적 일상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명료한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적합하게 합의된 학문적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상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학문적 용어로 기술된 의미 단위들로부터 구성 요소들을 도출해내고 여러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 즉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유로운 창조적 사고를 통해 예외적 사례들을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변하지 않는 본질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안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의 본질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가 매우 민감하고 연구 참여자 및 참여자의 내담자와 가족까지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용 설명문과 동의서를 온라인용과 오프라인용으로 각각 작성하여 IRB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1년 4월 7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다(P01-202104-22-001). 인터뷰에 앞서 연구자를 소개하였고 연락처를 알렸다. 그리고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 진행 중 중단 요청권리와 비밀 유지에 대해 안내하였다. 익명 처리를 약속하고 면담내용의 녹음에 동의한 때에만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서명받은 동의서는 스캔하여 참여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참여자의 내담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중 특별히 비밀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에게도 전사 자료를 보내어 내용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참여자 및 참여자의 내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였다. 인터뷰 녹음과 기타 연구 참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학위논문 심사와 논문게재 완료 후 녹취를 비롯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이며 문서에 기록되어 사용된 모든 자료도 안전하게 분쇄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에 관한 4가지 평가 기준(Lincoln & Guba, 1985)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원칙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의 반영을 위해 면담 시간을 잡기 전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정리된 녹취록 필사본을 보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연구면담 내용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자의 분석이나 기술이 또한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

을 거칠 수 있도록 지도교수와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받고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받고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기 경험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한 선행 연구들을 읽고 검토하며 본 연구의 분석 절차 및 결과와 비교 대조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반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는 동료 상담자에게 연구의 결과를 알려주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였으며 본인들의 경험과 비교하여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셋째, 일관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연구자들도 이와 연관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일관성 측면을 높이고 후속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상담학과 교수 1인, 질적 연구 전문가 1인과의 지속적인 점검과 토론을 통해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중립성을 위해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가정과 선 이해를 점검해 보는 것은 연구실행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실천이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서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스스로 판단 중지하여 재점검하거나 원자료로 돌아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자

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의 선 이해를 적어보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참고하며 상기시키려고 하였다. 연구하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떠오르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끊임없이 메모하고 점검하는 태도를 지켜가며 판단중지(epoche)와 환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노력하였다.

결 과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에 관한 일반적 구조기술

본 연구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경험에 대한 총 7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경험의 내용을 내담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한 이후의 과정까지 상담자로서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시간적 구성과 상호작용되는 상황에 따라 제시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일반적 구조의 통합적 기술을 통해 그러한 상담 경험의 본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핵심 1.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마주함

첫 번째 구성요소는 참여자들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 초기과정을 나타낸다. 이 구성요소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만남’, ‘감정의 소용돌이 속 내담자와 함께 함’의 2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만남

상담 기관에 의뢰되는 내담자들은 피해로 인한 어려움보다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 관계의 어려움 등의 호소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찾아오게 된다.

“당시 아이가 자살 충동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긴급 입원시키고 퇴원하고 상담하면서 성정체성을 이야기하다 아버지에 의한 추행 사건을 알게 되었죠.” (참여자4)

“명하게 현실과 차단된 느낌이라 우리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어려웠어요.” (참여자6)

감정의 소용돌이 속 내담자와 함께함

상담자들은 피해자인 내담자들을 안정시키며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입장이 느껴지며 공감하게 된다.

“남친과의 성관계로 인한 곤란함을 얘기하다 아빠의 친족성폭력이 발견되고 이 아이의 고통과 혼란스러움은 한층 커진 것이죠.” (참여자 1)

“공개하고 신고하기까지 1년 동안 수치심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공개해도 제대로 처벌 되지 않을까, 계부가 깨질 경우 자기 가족은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자기만 입 다물면 모든 게 그냥 지나가고 엄마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참여자2)

표 2.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경험의 구성요소

핵심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마주함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만남	관계의 어려움, 자살충동 등 다양한 호소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과 상담을 시작함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
	감정의 소용돌이 속 내담자와 함께함	내담자를 안정화시키며 피해사실을 표현하도록 도움 피해개방 후 분노와 원망감, 자책감 등의 감정을 보이는 내담자의 고통과 마주함 피해자인 동시에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느끼는 내담자의 입장이 인식됨
사례의 큰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움	사례에 대한 한계와 부담감을 느낌	여러 가지가 얽힌 친족성폭력 피해자임을 알고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낌 탐색할수록 놀라고 충격을 받음 비밀보장 한계에 따른 심각한 사례의 처리를 고민함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혼란스러움
	신고도 회피도 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홀로 고민함	내담자에게 신고를 설득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느낌 신고를 막는 보호자로 인한 내담자의 고통을 함께 겪음 내담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신고를 미룸
내담자의 감정이 전이되어 고통을 공유함	보호자에게 화가 나는 한편 안쓰러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보호자에게 무력감과 분노를 느낌 보호자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쓰임
	가해자를 보며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화가 남	가족인 가해자를 보며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해자를 보는 마음이 힘들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에 화가 나고 가해자를 별주고 싶음
내담자의 세계에 몰입됨	안간힘을 쓰며 살아내는 내담자가 안쓰러움	혼자 열심히 살아내는 내담자에게 연민이 생김 내담자의 선택을 지지하고 조율하며 따라가나 짝한 마음이 생김
	사례에 대한 긴 잔상을 겪음	일주일 내내 내담자와 함께 사는 것 같음 오랫동안 내담자와 같이 아픔을 느낌
삶의 균형감을 잃어버림	일인 다역으로 소진됨	다양한 역할을 해나가며 지침 많은 회의와 슈퍼비전을 받는 등 타 사례보다 시간과 노력의 비중이 큼
	상담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두려움을 느낌	가해자와 보호자의 해코지가 걱정이 됨 심플한 매뉴얼 속의 숨은 의미를 읽어야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음

표 2.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경험의 구성요소 (계속)

핵심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삶의 균형감을 잃어버림	고통의 흔적이 여전함	가해자를 맞닥뜨린 순간의 복잡한 감정이 잊혀지지 않음
		상담자가 경험했던 과거의 성적 불쾌감이 떠오름
		내담자의 기억으로 고통스러움
	방어적 태도가 증가함	비슷한 사례를 만날 때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낌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각심이 높아짐
		상담 과정에 대한 후회나 열악한 처우를 느끼며 상담자 역할에 회의감이 듦
상담의 동맹자로서 회복에 다가섬	체증처럼 후회가 남아버림	에센 사례에 대한 위로도 보상도 없는 현실에 쓸쓸함을 느낌
		살아내려 애쓰는 내담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내담자를 보며 힘을 얻음
		보이며 상담자로서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김
	미래를 조망하며 발돋움함	내담자와 보호자에 대한 책임감이 커짐
		동료들과 전문가를 통한 슈퍼비전과 정서적 지지가 도움이 됨
		취미활동이나 신앙생활 등 상담현장이 아닌 공간에서 자기를 돌봄
상담의 자원을 찾아 활용하기로 함	법적 의무보다 내담자 요구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짐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상담자의 역량을 키워나감	
	기관과 함께 사례를 진행하며 안정감을 느낌	
한고비 넘어 다시 상담의 여정으로 나아감	상담자로서 삶에 성장을 안겨준 경험임을 알게 됨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을 통해 함께 성장함을 느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가지게 됨
	성장통을 겪으며 잔뼈가 굵어지고 상담근력이 강화 됨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내담자의 감추었던 부분들을 잘 다루어주게 됨
		자신을 보호하는 적극성이 생김
		상담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생성함

“가해자에 대한 분노, 가족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돌봐주지 못하는 처리 과정에 대한 원망감, 자기 비난, 자책감 같은 정서적인 혼란스러움을 쏟아 놓을 때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 내야 하는 거죠.” (참여자5)

담의 큰 무게감과 상담자로서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사례에 대한 한계와 부담감을 느낌’, ‘신고도 회피도 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홀로 고민함’으로 나타났다.

핵심 2. 사례의 큰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움

두 번째 구성요소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

사례에 대한 한계와 부담감을 느낌

친족성폭력 피해자 사례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며 비밀

보장의 한계에 해당하는 사례로 상담자로서 고민이 많고 모든 과정이 부담이 크고 버겁다.

“친족성폭력 같이 민감하고 너무 끔찍한 것을 내놓게 하는 과정은 내담자가 모든 걸 걸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권리로 내가 그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걸 비밀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참여자2)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내담자가 얼마만큼 표현 할 수 있는지를 봐가면서 접근하는 게 어려웠어요. 성폭력 피해를 많이 다루어보지 않았던 초반에는 슈퍼바이저에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왜 물어보지 않았냐고 지적도 많이 받고 또는 왜 이렇게 취조하듯 물어봤냐고 오히려 혼나기도 하고.” (참여자3)

신고도 회피도 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홀로 고민 함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이 아닌 그 이외의 기관에서는 상담 진행 방식의 차이로 상담자는 내담자 보호와 신고의 의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가 탐색하고 증언을 받아야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까지 가는데 얘기하고 한 시간 내내 울었어요. 1년 동안 실무진과 내담자 중간에서 신고하고자 하면 내담자는 죽고 싶다고 하고” (참여자2)

“아이를 보호해야 하지만 신고와 보호의 문제가 대치되는 느낌이 저한테 무력감이나 절망감으로 오고 상담하기 싫다... 할 수 있는 게 신고밖에 없더라고요” (참여자8)

핵심 3. 내담자의 감정이 전이되어 고통을 공유함

세 번째 구성요소는 상담과정 중 참여자들의 상담자 전이 과정으로 ‘보호자에게 화가 나는 한편 안쓰러움’, ‘가해자를 보며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화가 남’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에게 화가 나는 한편 안쓰러움

대부분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감당해야 하는 물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예상하고 공개를 꺼리며 은폐하려 한다. 이런 보호자를 만나는 상담자의 분노감, 무력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 들에 대한 연민을 이야기한다.

“아이 엄마가 아빠가 이걸로 직장을 못 다니면 어떡하나, 성범죄자로 고지돼서 우리가 이 집에 못 살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을 딸에게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괴롭죠. 엄마가 아이 편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 같은 그 아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참여자1)

“어머니 입장에서는 둘 다 아픈 자식이잖아요. 그 마음도 참 힘들 거라 짠고요.” (참여자5)

가해자를 보며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화가 남

가족인 가해자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지켜보는 상담자들의 마음 또한 화가 나고 힘이 들을 이야기한다.

“19년 초에 완전히 끝났었는데 가해자가 그 이후에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진차육해도 되나요? 저 좀 쌍욕하고 다니거든요. 또라이죠.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분노가 일고 눈빛이 더럽게 느껴졌고.” (참여자2)

“가족 내에서 피해자들이 하나의 소유물이구나. 그래도 된다는 소위 가부장적 구조, 그런 문화에 대한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죠.” (참여자5)

핵심 4. 내담자의 세계에 몰입됨

네 번째 구성요소는 참여자들이 큰 부담을 안고도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담자에게 몰입되는 내용이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안간힘을 쓰며 살아내는 내담자가 안쓰러움’, ‘사례에 대한 긴 잔상을 겪음’으로 확인되었다.

안간힘을 쓰며 살아내는 내담자가 안쓰러움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후 살아내려 애쓰는 내담자들을 보며 참여자들은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상담자로서 더욱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한다.

“애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연민이 컸고 너무 불쌍하니까 못 놓았죠.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했고 센터 규정상 10

회기 종결할 수 있죠.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감정을 전부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어떨 땐 그냥 특별한 반응보다 침묵하고 경청하는 게 오히려 더 공감하는 거니까. 친족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당신의 아픔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와 닿을까. 이들의 삶은 다 무너지고 사실 이 피해를 지울 수 있을까. 이 건 죽을 때까지 평생 가져가야 하는데.” (참여자3)

사례에 대한 긴 잔상을 겪음

참여자들은 사례를 진행하는 동안이나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잔상을 경험하며 아픔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애는 일주일을 나랑 같이 산 느낌이죠. 가해자를 주말이면 보게 되고 공황 증상도 있는데 버스는 멀쩡히 탔을래나 잘 도착했을래나. 집까지 사례를 머릿속으로 들고 가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애는 그랬어요.” (참여자7)

“세상이 너무 슬프다. 그래도 상담과 나머지 삶에서 제 감정을 이제는 조금 분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당연하게 같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참여자8)

핵심 5. 삶의 균형감을 잃어버림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과정을 거치며 참여자들이 삶의 균형

감을 잃을 만큼 소진되고 영향을 받은 경험을 포함한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일인 다역으로 소진됨’, ‘상담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두려움을 느낌’, ‘고통의 흔적이 여전함’, ‘방어적 태도가 증가함’, ‘체증처럼 후회가 남아 버림’의 다섯 가지가 확인되었다.

일인 다역으로 소진됨

참여자들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잦은 회의에 참석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되고 또한 다양한 역할을 해내며 소진된다.

“다섯 시간까지 걸리면서 경찰서부터 재판까지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엄마, 상담자, 대변인, 보호자 역할까지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당시 제가 만삭으로 재판까지 갔어요.” (참여자2)

“가족들과 얽혀 있는 부분들이나 다른 가족들의 입장 등을 전면적으로 고려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매번 거의 매 사례를 슈퍼비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지치죠” (참여자5)

상담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두려움을 느낌

가해자의 해코지를 걱정하거나 상담자로서 보호되지 않는 현실에서 참여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이런 식으로 건드려? 앞으로 우리 식구들 먹고사는 거

책임져 줄거냐? 그냥 손이 떨리고 분노가 컸어요. (중략) 그 얼마나 저 사람이 내 얼굴을 알고 안전보장이 안 되니까 현타가 왔죠. 가해자인 계부와 짜고 도주를 돕고 결국 고소 취하하도록 아이를 설득하고 재판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어요. (중략) 가해자를 만날 일은 없다가에 증인 출석했는데 그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의 불쾌함과 찝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이사했지만 몇 년간은 불안했죠.”(참여자2)

“엄마랑 동생을 정서적으로 장악하면서 칼로 두 번 찌르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확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다녔거든요. 집에서 폭력이 있어서 신고한 적도 있고 제가 아이를 데리러 집 앞으로 갔을 때 혹시 쫓아 나와서 제 차 번호를 본다거나 저한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싶고 두려웠죠.”(참여자8)

고통의 흔적이 여전함

상담 진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은 참여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만난 그 사람의 시선으로 굉장히 오염된 듯 더러운 기분 (중략) 자꾸 생각하면 힘드니까 감정을 묻어두고 지냈던 기간이 꽤 되는데 작년에 제가 수상을 하면서 와~ 이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물어봤던 억울했고 힘들고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참여자2)

“법원에 가서 그 가해자를 직접 봤어요. 저 새끼! 근데 내담자와 너무 닮았다는 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예요. (중략) 그분은 상담하면서 자살 시도가 제법 많았어요. 다리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퇴근길에 발견하고 119를 출동시켜 구조가 되었지만 결국 자살하셨거든요. 가해자의 얼굴이나 내담자 얼굴이 너무 기억나는데 6월에 하늘로 가셔서 6월만 되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참여자3)

방어적 태도가 증가함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은 비슷한 사례 진행 시 긴장감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며 방어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었다.

“상담에서 자살 얘기가 나오면 쉽게 경직되어 그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다른 부분을 못본다던가 더 긴장하게 되고.” (참여자3)

“경각심이 많이 생기죠. 조카나 내 주변을 더 조심시키게 되고.” (참여자6)

체증처럼 후회가 남아버림

참여자들은 상담이 종료된 후 겪게 되는 상담자 역할에 대한 회의감과 씩씩함을 이야기한다.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 그분 생각도 많이 나고 1000년에 가셨죠. 아직도 그분에 대한 미안함, 그때 조금 더 지지하고 뭔가 해보자고 할걸. 추후 상담을 진행하자고 하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고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여자3)

“제가 여기까지 자진해서 온 거잖아요. 아무도 고맙다고도 잘했다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나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너무 미안했고 진짜 ‘상담을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참여자2)

핵심 6. 상담의 동맹자로서 회복에 다가섬

여섯 번째 구성요소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노력 과정을 포함한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살아내려 애쓰는 내담자가 보이며 상담자로서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김’, ‘미래를 조망하며 발돋움함’, ‘상담의 자원을 찾아 활용하기로 함’의 세 가지로 확인되었다.

살아내려 애쓰는 내담자가 보이며 상담자로서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김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애쓰는 모습과 그들에 대한 연민과 소명감을 되새기며 회복에 다가선다.

“내담자가 주저앉아버리지 않고 힘 있게 앞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저도 힘을 얻고” (참여자1)

“잘 사는 게 복수고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내려는 아이를 보며 나도 마음을 다잡고 상담자로서 소명감이 있음을 느끼고.” (참여자7)

“내가 집념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애

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봉사지 돈벌이가 아니에요.” (참여자2)

미래를 조망하며 발돋움함

참여자들은 주변의 지지와 격려 속에 회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성폭력 전문기관에서는 사례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담자는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사례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요소였음을 보고한다.

“기관의 사례 담당자나 동료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업무를 분담하고 저는 상담만 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촘촘하게 슈퍼비전 받으면서 압도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지지받고 자전거나 그림도 배우고 그냥 180도 다른 나, 상담자가 아닌 그냥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그렇게 확전환해서 전혀 다른 나로서 자기 밸런스를 맞추면서.” (참여자3)

“저의 신앙 안에서 기도할 때 평안을 느끼며 마음을 좀 다스리곤 했죠.” (참여자8)

상담의 자원을 찾아 활용하기로 함

참여자들은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찾아내고 상담자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내담자가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 동기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춰가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자체로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따라가기로 했죠. (중략) 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계속 점검

하는 게 필수죠. 상담자가 이 부분에 유연하지 않으면 자칫 성폭력 피해 내담자들을 만날 때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관점으로만 본다거나 생존자로서 가진 다른 영역들을 놓칠 수 있어요.” (참여자3)

“그 사건 이후로 판례나 형량 공부도 하고 성범죄 관련해서 개정된 법도 업데이트하고 기관에 교육 요청하고 유사사례를 동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참여자4)

핵심 7. 한고비 넘어 다시 상담의 여정으로 나아감

일곱 번째 구성요소는 참여자들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로는 ‘상담자로서 삶에 성장을 안겨 준 경험임을 알게 됨’, ‘성장통을 겪으며 잔뼈가 굵어지고 상담근력이 강화됨’의 두 가지로 확인되었다.

상담자로서 삶에 성장을 안겨준 경험임을 알게 됨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 또한 성장하였음을 느끼며 상담자로서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상담자, 내담자로 만나지만 저분이 경험했던 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그릇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담자들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많은 성장과 숙제를 안겨준 사례예요.” (참여자3)

성장통을 겪으며 잔뼈가 굵어지고 상담근력이 강화됨

참여자들은 친족성폭력 사례를 통해서 배움이 있었고 그 안에 자신만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담자에게 상담이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성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혼자 감당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상담하지 않았다면 친족성폭력은 아마 만나왔을 거예요. 이제는 마음속에서 제 우수사례거든요. 제가 영향을 끼쳤다가보다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내담자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게 상담의 묘미였던 거 같아요” (참여자1)

“그분이 마지막에 본인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조금 어려운 삶의 고통을 가진 내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중략)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되게 미안해질 때가 있고 이분을 만났던 건 앞으로 상담하면서 좀 더 집중하고 더 진지해지고 그 아픔에 많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라는 어떤 경종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요. (참여자3)

“내담자를 만날 때 성 이슈에 좀 민감해져서 상담에서 물을 걸 묻고 지나치지 않아야 될 거를 지나치지 않는다 그게 생겼어요.” (참여자6)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경험에 관한 일반적 구조의 통합적 기술

Giorgi(1985)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 구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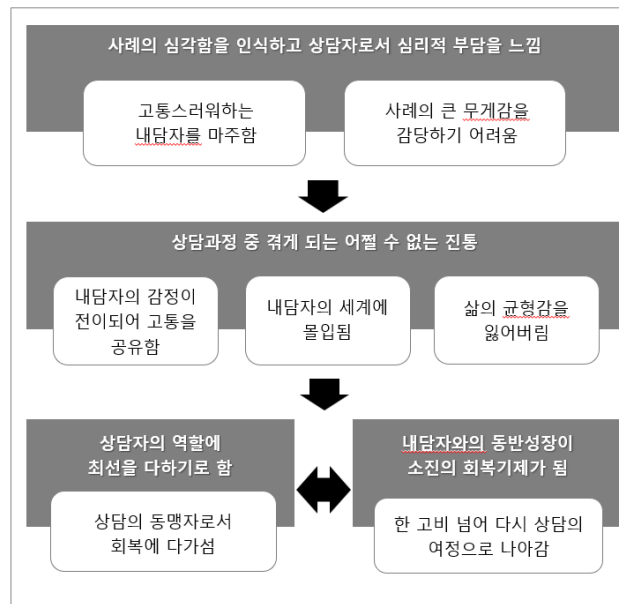


그림 1.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에 관한 구조

도출하기 위해서 모든 의미단위를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일관적인 진술로 통합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 절의 상황적 기술을 토대로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의 구조를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에 관한 7가지 구성요소를 다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통합하여 이해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면서 그들이 쏟아내는 감정을 받아내고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가지가 얽힌 복잡함을 인식하고 상담자로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경험이다(구성요소 1, 2). 두 번째 범주는 버티고 견디어 보지만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전이되고 내담자 세계에 몰입되며 삶의 균형감을 잃어 버리게 되는 상담 과정에서의 진통 경험이다(구성요소 3, 4, 5). 세 번째 범주와 네 번째 범주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세 번째 범주는 상담의 동맹자로서 내담자와 자신을 위해 회복에 다가서는 과정이다(구성요소 6). 네 번째 범주는 어렵고 힘든 사례였지만 내담자와 동반 성장하며 소진에서의 회복기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험이다(구성요소 7).

논 의

본 연구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상담자들의 경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경험한 상담자의 경험을 상황적으로 기술한 후 다시 4가지 범주로 통합한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기술하고 한다.

사례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담자로서 심리적 부담을 느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만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자해 충동,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호소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찾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치료받지 못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스트레스 관리와 대인관계에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김영택 외, 2010).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신뢰했던 가족이 가해자이며 오랫동안 반복된 피해로 그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일반 성폭력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조성호, 김연희, 2011). 내담자들은 피해 사실을 개방한 후 가해자와 방관하는 보호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드러내고 신고 후에는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이 주어질까 걱정하고 가족을 신고해야 하는 죄책감,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로 고통스러워한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이뿐 아니라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은 사례가 지닌 사안의 심각성과 복잡성 등에 압도되기 쉽고 부담 또한 크다. 그 예로 한 가족 안에서 자녀 간의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들이 피해 가족을 지지하더라도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Hackett & Masson, 2006). 또한 피해자에게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하는 남은 가족도 사건 발생에 대한 충격으로 당황함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이정은, 김미정, 2011). 또는 보호자가 상담자들에게 인신공격

적인 협박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신고를 방해하기도 한다. 친족성폭력 사례는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듯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을 신고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거나 가해 가족과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며 가족들은 피해자의 호소를 부인하려 하기에 신고의 어려움이 발생한다(한인영 외, 2012; Elliot & Carners, 2001; Kilroy et al., 2014).

위와 같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는 상담자들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전이되거나 전염되는 공감피로를 경험하며(양윤정, 2015) 이는 소진으로 연결된다(신민섭, 이서정, 2011). 그들은 소진의 상태에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일에서 멀어지며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신민정, 2007). 참여자 중에는 한동안 사례로부터 거리를 두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였다. 내담자의 사건이 자주 떠오르고 그것이 상담자의 생활이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다(Eigley, 2002; Craig & Sprang, 2010). 최해림(2009)의 연구에서 상담 과정 중에는 많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요구, 심리적, 환경적 도전의 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결과와 같다. 또한 국내의 상담자들이 기관 지원의 부족 등으로 외국의 상담자보다 직업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Kim, 2007)와 연결된다. 국외의 경우 학회 소속 상담자를 대상으로 자살 사망 내담자 경험을 실태조사하고 그에 따른 상담자 지원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학회에는 그러한 상담자 보호 지원이나 지침은 부재하다(손유미, 2023). 그러나 국내에서도 사회복지

사 협회는 3년마다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외상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경우 심리지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온오프 상담실 운영과 회복 프로그램 제공, 의료나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9). 그러나 상담관련 학회에서는 아직 그러한 지원이 구축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친족성폭력은 관계가 변하지 않기에 다른 성폭력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김영서, 2020). 하지만 현재 상담 현장에서 특수한 주제에 따른 기관과 상담자의 배치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특정 소수집단에 속한 내담자를 위한 상담자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된다(이아라, 이주영, 2003). 특별히 민감한 주제를 만나게 되는 상담자들은 제도적 뒷받침이나 특정 영역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매우 미흡한 상태로 여겨지며 이에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들을 돕는 상담사들은 사례의 큰 부담감과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담과정 중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진통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감정이 그대로 전이되어 고통을 공유하기도 한다. 보호자가 가해자의 회유에 넘어가 공론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건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고도 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의 무기력감을 상담자도 느끼게 된다. 이뿐 아니라 가족인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해자와 한집에 머물러야 하는 두려움이나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를 원망하는 또 다른 가해자 같은 보호자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은 상담자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배

신감과 분노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며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남성에 대한 적대감과 사회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변혜정, 조중신, 2005)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중에도 참여자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내담자의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무너진 삶을 부여잡고 살아내려는 내담자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낀다. 온통 그 사례에 몰두하게 되고 오랫동안 사례에 대한 진상을 경험하며 그들의 아픔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편 상담자가 보호 받을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는 과정을 비롯해 신고의 설득과 보호자나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상담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그때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오랜 기간 불안하고 두려운 정서의 경험을 하였다. 심지어 참여자들은 사례를 진행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인터뷰 중에 지금도 가해자에 대한 욕이 불쭙 나오거나 그때의 기억으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손유미(2023)의 자살사건 내담자 경험을 한 상담자 연구에서도 면담 질문지의 사전 확인 단계에서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연구 참여를 철회한 경우를 볼 때 상담자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삶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트라우마는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을 상실시키고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느끼며 자아 정체감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등 인지적인 영역의 변화를 불러온다(Streed & Downing, 1998).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방어적 태도가 증가하며 사람과 세상 전반에 불신이 높아져 타인을 보는 시선이 예민해지고 높은 긴장감을 경험한다. 내담자가 겪은 사건이 떠오르고 이것이 상담자의 전반적 생활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igley, 2002). 또한 개인의 외상 경험에 노출된 종사자들은 내담자의 이야기나 감정을 듣고 자신이 경험했던 학대를 상기시켜(Pearlman & Saakvitne, 1995) 과거 자신들의 불쾌했던 성적 경험이 재생산되는 느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련한 상담자였다면 어땠을까’, ‘나의 내담자가 선택한 자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결과에 대한 자책감을 느낀다. 또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판결과 구속 여부가 나오는 동안 내담자 가족에게 비난이나 언어폭력, 협박을 받기도 한다(김영혜 외, 2017)는 연구 결과와 같이 참여자들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과 역할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걱정하였다. 상담자들이 상담과정을 통해 선악과 사회 정의의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되는(변혜정, 조중신, 2005) 것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상담자로서 정체감이 흔들리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삶의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상담자를 위한 극복방안으로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슈퍼비전과 개인의 전문가 상담 그리고 대리 외상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강방글 외, 2013)와 미국심리학회(APA)가 인준한 모든 상담심리 프로그램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김은하 외, 2019)처럼 국내에서도 상담수련 프로그램에 성폭력 피해자 상담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교육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은 매우 부재하다(장세미, 장석숙, 2016). 또한 상담자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자살 위기 내담자를 평가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실제 내담자의 자살 사망을 경험할 경우 대처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으며(knox et al., 2006) 손유미(2023)는 내담자 자살과 같은 위기개입 상담에서 대처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개인차원과 기관차원, 학회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관차원에서는 다시 정서적 영역과 행정적 영역, 법률적 영역으로 나누고 상담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며 상담자 발달 단계에 따른 상담자에게 적용 가능한 개입을 제안하며 위기개입 사례 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위한 대처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친족성 폭력 피해자 상담으로 인한 소진감을 극복하고 상담자로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자원을 찾아나갈 수 밖에 없었다.

상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치고 소진된 상황에서도 상담의 동맹자로서 내담자와 자신을 위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살아내려고 애쓰는 내담자를 통해 힘을 얻게 되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리고 상담자로서 가졌던 소명감을 떠올린다. 성장과 고통은 회복을 위해 상호배타적이지 아닌 밀접하게 연결된 것(Saakvitne et al., 1996)이다. 상담활동가들이 피해자들의 모습에서 배우고 자신의 외상을 드러내는 자기 개방을 통해 유대감 발달과 자매애를 느끼며 자존감, 신뢰, 힘, 친밀감을 회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가 듯(지영경, 2017)

연구 참여자들도 내담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회복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 상담의 동맹자로서의 회복의 시작은 소진된 상담자의 회복 기제가 되었다.

대리외상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동료 및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슈퍼비전과 개인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강방글 외, 2013)고 보고하는 연구 결과와 같이 참여자들은 동료들이나 전문가를 통한 슈퍼비전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힘을 얻는다. 상담활동가들은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서 피해자 지원활동으로 사회 변화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없는 헌신은 한계가 있기에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보다는 상담이 한편 나를 돕는 일이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지영경, 2017)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이해와 자기 돌봄의 실현이 필요하기에(변혜정, 조중신, 2005) 참여자들은 공연 감상, 운동 같은 취미활동이나 신앙 활동,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의 오락과 자연 활동 등을 통해 상담 현장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임상희(2018)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틈틈이 짧은 여행,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드라이브, 좋은 곳에서 차 마시기 등의 일상의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혜영, 조은숙(2018)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원가족 경험이 부정적일지라도 자기 돌봄 행동을 통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수 있음을 보고하며 상담자의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상담의 자원을 찾기로 한다. 법적 의무보다 내담자 요구를 우선시하게 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상담자의 역량을 키우고 기관과 함께 사례를 진행하려고 했다. 실제 상

담을 경험한 내담자들이 상담자로부터 의도적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닐지라도 모욕감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이크로 그레션을 경험하고 있다(김혜민, 유금란, 2021).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여자들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로서의 태도와 그들의 성찰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며 교육받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을 자신의 전문 분야로 특화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반성폭력 운동의 상담활동가들이 ‘적응’보다 ‘변화’를 선택하지만 자신들을 역량을 늘 점검하며 강화하기 위해 힘쓰는 것(안은주, 2016)과 같았다.

내담자와의 동반성장이 소진의 회복기제가 됨

탈중심화와 삶의 의미는 외상 후 성장을 위한 필수 인지 과정이며 특히 탈중심화는 외상 후 성장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선행 인지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김인주, 김도연 2015)의 결과처럼 탈중심화를 통해 상담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한다.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게 되며 그들을 돕기 위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에 감사하게 된다. 상담활동가들에게 여성주의 가치의 신념화와 높아진 자존감은 여성주의 의식의 확장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고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지영경, 2017)는 결과처럼 참여자들 또한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가지게 되며 상담자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마음 먹는다. 즉 상담의 동맹자로서 내담자와의 회복의 시작은 상담자의 소진의 회복기제가 되

며 이는 다시금 상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상담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자들이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상담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본질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친족성폭력에 관한 연구로는 친족성폭력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 사회적, 법적 개입과 해결 방안 탐색, 후유증과 적응 과정, 친족성폭력의 특성과 실태,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 주로 피해자를 위한 연구나 관련 종사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는 상담자라는 개별 연구를 통해 그러한 상담을 경험한 상담자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며 참여자들이 진술한 자료를 상담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친족성폭력 피해를 성폭력의 하위 변인으로만 본 기존의 연구와 달리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례를 독립된 상담사례 경험으로 보고 상담자의 경험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 비교해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후유증을 경험함으로써 일반 성폭력과 다르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독립 상담사례 연구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모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 경험도 다양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를 모집한 것은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이 초심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나 피로도가 아닌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자의 경험 탐색을 통한 이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폭력 전문 상담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참여자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기관에서 진행되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듣고자 함이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를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개인적, 직업적, 관계적, 사회적 차원의 요소들을 발견하였고 상담 현장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그 상담의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곱째,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현장에서 상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의 기술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전문 상담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자들이 참여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시설 상담센터 등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위기 개입이 진행되고 있다. 기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두 기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폭력 전문기관과 그 외 기관에서 다양하게 참여자들을 표집하고 기관별 경험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드러났던 피해자의 사례는 신고 되어 상담이 잘 마무리 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담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연구주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와 참여자의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참여자 모집 시 참여자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는 신고하지 못했거나 상담을 합의 하에 종결하지 못하고 드롭아웃 되는 경우였다. 추후 이러한 경험까지 포괄한 연구를 통해 상담자들의 경험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여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방글, 한인영, 이현정, 박정림 (2013). 성폭력 상담사의 대리외상에 대한 주관성 인식 유형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3), 118-147.
- 공수자, 이정숙 (2004).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3(1), 51-63.
- 권혜영, 조은숙 (2018). 상담자의 원가족 건강성이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돌봄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9(4), 71-86.
- 김소현 (2022). 상담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서 (2020).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서울: 이매진
- 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2010).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성인지적 분석 및 요예산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 1-153.

- 김영혜, 지승희, 김소현 (2017). 청소년상담자가 경험한 친족성폭력피해자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5(3), 21-39.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상담 교과 과정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김인주, 김도연 (2015). 지각된 사회적지지, 탈중심화,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리 외상을 경험한 성폭력지원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6(5), 55-73.
- 김혜민, 유금란 (2021).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01-1526.
- 변혜정, 조중신 (2005). 성폭력피해자 치유 매뉴얼, 여성가족부.
- 변혜정, 조중신, 현해순 (2005).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9).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 손유미 (2023). 내담자 자살 사망을 겪은 상담자 경험: 탐색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민섭, 이서정 (2011). 친족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 신민정 (200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공감피로, 소진, 공감만족에 관한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주 (2019).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121-141.
- 안은주 (2016). 상담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 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윤정 (2015).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3, 179-200.
- 여성가족부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 결과.
- 이경은, 김미정 (2011). 성학대 피해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6, 197-230.
- 이미정, 이인선, 김기현 (2013).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 이아라, 이주영 (2023). 슈퍼바이저가 성소수자 상담 진행에 대한 상담 교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3), 797-829.
- 임상희 (2018). 아동상담자의 자기 돌봄 체함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장세미, 장성숙 (2016).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요소 연구, 슈퍼바이저 발달 요인과 슈퍼바이저 역량요인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4), 488-502.
- 조성호, 김연희 (2011). 성폭력 피해 아동 부모 면담 매뉴얼 워크북.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1-154.
- 지영경 (2017). 부산지역 반성폭력상담활동가의 성장경험 연구. 신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상담자 소진 내용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81-598.
- 최해림 (2009). 상담자의 자기 돌봄. *인간이해*, 30(1), 1-19.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2011년 한국성폭력

- 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 2019년 한국성폭력 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인영, 문현주, 구혜완 (2012).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가족의 특성과 대응: 관련기관 실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학*, 26(4), 91-117.
- Craig, D. D., & Sprang, G. (2010).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in a national sample of trauma treatment therapists. *Anxiety, Stress, & Coping*, 23(3), 319-339.
- Elliot, A. N., & Carners, C. N. (2001). Reactions of nonoffending parents to the sexual abuse of their chi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Maltreatment*, 6(4), 314-331.
- Figley, C. R. (Ed.) (2002). *Treating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ner-Routledge.
- Giorgi (1985).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현문사 (2004).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한국질적 연구센터.
- Hackett, S., & Masson, H. (2006). Young people who have sexually abused: What do they (and their parents) want from professionals?. *Children and Society*, 20(3), 183-195.
- Jung, C. G. (1968). *Lecture five: Analytical psychology: It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andom House.
- Kilroy, S. J., Egan, J., Maliszewska, A., & Sarma, K. M. (2014). Systemic trauma: The impact on parents whose children have experienced sexual abuse. *Child Sexual Abuse*, 23(5), 481-503.
- Kim, E. (2007). Occupational stress: A survey of psychotherapis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4(1), 111-120.
- Knox, S., Burkard, A. W., Jackson, J. A., Schaack, A. M., & Hess, S. A. (2006). Therapists-in-training who experience a client suicide: Implications for supervi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7(5), 547-55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 Pearlman, L., & MacLan, P. (1995). Vicarious traumatization: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rauma work on trauma 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6), 558-565.
- Pearlman, L. A., & Saakvitne, K. W. (1995). *Trauma and the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in psychotherapy with incest survivors*. WW Norton & Co.
- Saakvitne, K. W., Pearlman, L. A., & Abrahamson, D. J. (1996). *Transforming the pain: A workbook on vicarious traumatiz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Slattery, S. M. (2003). Contributors to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mong domestic

- violence advocates; An ecologic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s, Boston College*(UMI No.3103222).
- Sommer, C. A., & Cox, J. A. (2005). Elements of supervision in sexual violence counselors' narratives: A qualitative analysi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5*(2), 119.
- Streed, L. G., & Downing, R. (1998). A phenomenological study of vicarious traumatization amongst psychologists and professional counsellors working in the field of sexual abuse/assault. *The Australasian Journal of Disaster and Trauma Studies, 2*.
- Trippany, R. L., Kress, V. R., & Wilcoxon, S. A. (2004). Preventing vicarious trauma: What counselors should know when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31-37.

원 고 접 수 일 : 2024. 02. 19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4. 15

게 재 결 정 일 : 2024. 05. 2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ounselors' Experiences in Counsel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within the Family

So Hyun Kim

Yoon Counseling Center / Counselor

Moon Kyeong Jeong

Hansei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ounseling proces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within the family. The subjects were eight counselors with more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is field.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Giorgi (1985) was applied to the research analysis. As a result, seven core components and 19 sub-components constituting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counseling experience were derived from the statements of the participants. The seven core components are: facing a painful client, difficulty in bearing the weight of the case, transferring the client's emotions to share pain, immersion in the client's world, losing balance in life, approaching recovery as an ally in counseling, and moving beyond one crisis to the journey of counseling.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ounselor, Sexual violence within the family, Counseling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within the family, Phenomenological study